



예수대학교 동문회보

발행인 : 류금주 / 편집인 : 윤 진 / 발행 :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TEL.(063)230-7709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 (560-714) <http://jesus.ac.kr>

2010.11
Vol. 9



제9회
전주 예수 병원 간호 학교
1962 3 2

제9회 동문
졸업사건입니다.



제32회 가관식 1982.10.22 예수간호전문대학

제32회 동문 가관식 사진입니다.

다음호에는 제10회와 33회 동문의 사진이 소개됩니다.

Contents

2010. 11 vol 9

03 회장인사

사랑하는 동문여러분께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_ 류금주

04 개교60주년 기념 축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_ 조민숙

05 총장인사

예수대학교 동문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06 고 양광자 초대총장 추모예배

08 예수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행사

13 동문탐방

문옥자 동문을 만나서 _ 심정하

14 예수대학교 개교60주년 행사 참관기 _ 이해자

16 졸업25주년 재상봉을 마치고 _ 최경애

17 동문재상봉

18 동문편지

저는 KOICA 단원 유애령입니다 _ 유애령

19 장학재단소식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설립

20 동문소식

회의개최, 임원명단
해외동문, 국내동문, 예수병원 동문

25 모교소식

28 총동문회 장학기금 기부자 명단

30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33 예수대학교 동문회 회칙

35 총동문회 평생회원 명단



▶ 사진왼쪽부터 박순수, 강희자, 김옥자(이상 13 회), 고춘종(14 회) 동문



▶ 1999년 동아리 코스모스가 개최한 제11회 시낭송회

사랑하는 동문여러분께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류금주 회장 (18회)

지난 5월 개교 6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감사로 가슴 설레면서, 성대하고도 애뜻한 정이 가득 넘치는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세계 각국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던 우리 해외 동문 30여분의 모교방문은 너무나 깊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동문의 밤 행사는 참으로 가슴 뭉클하고도 멋진 축제의 밤이었지요.

그날, 총동문회가 열렸고 장학재단의 설립이 의결되었으며, 제 어깨에 총동문회장의 짐이 올리어졌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때 심정을 노트에 끼적였던 글로 못한 동문회장의 변을 털어 놓아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상에서는 쉬 잊고 지내는 주님의 이 물음을, 어떤 문제 앞에 서서 고민 할 때는 언제나 다시 꺼내게 된다.

그분이 행하신 충격적인 기적들을 수도 없이 읽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항상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파도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언제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가 이긴다.

“이 번에는 모든 상황이 네가 동문회장을 맡아주어야만 되겠기에 임원회에서 그리 결정이 되었으니 꼭 맡아주어야겠다.”라는 공순구 선배님의 말씀에 나는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게 “아!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예의도 없이 야물 차게 거절했었다.

공 선배님은 내 인생의 멘토 이시고, 그분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기에 적지 않게 당황하시는 듯 했다.

정말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내게는 동문회장이 갖추어야할 자격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시간에 쫓기며 지내다가 이제 막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 짐이 나의 어깨에 메워졌다.

장학재단의 설립은 참으로 골치 아프고 짊어지기 싫은 짐

이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매우 복잡했고, 관계기관들의 시선은 우리의 순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하필 내가 왜 이 귀찮은 일에 휘말려야 하나’ 라는 생각에 짜증의 농도가 자꾸만 상승되어 갔다.

그러나 그 분이 또다시 물으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눈물이 울컥 치 솟는다.

그렇다.

그 분은 인류의 역사를 그 분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으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몸소 고통과 슬픔을 겪으신 분이시다.

인류구원의 대 전제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 분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미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갑자기 우리의 수고가 너무나 하찬 아서, 엄살 피우는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하다. 하긴 주님과 늘 함께 지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망 시킨 적이 한 두 번이던가?

스스로 천금과 같은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손 꼭 잡고 전진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며, 우리모교가 어떤 의미를 지닌 기관인지 다시 한 번 새겨본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대학교가 아니던가!

그 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분은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 확실할진대, 그분만 찬양하며 걸어보자!

장학재단 모금을 위해 고생하신 전 회장님, 동참하신 동문님들, 특히 해외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교를 후원하시는 동문님들, 복잡한 서류준비로 수고하신 장학재단발기위원장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이곳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뛰어넘어 언제나 넘치게 채우시는 그 분의 평강과 복이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조민숙
시인, 예수병원보혈심사과장 (27회)

머나먼 이국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금혼한 사랑으로부터
우리 예수대학교의 여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아, 부귀영화 버리고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내팽개쳐진 이 나라에서
낮선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
풍도병과 싸워가며
그들은 진리와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 온기가 우리들 가슴에
해마다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며
지금, 60해를 맞은 우리
이제 그 열매는
또다시 제 2국, 제 3국의 먼 나라에까지
빛진 사랑의 씨로 뿌려질 것입니다.

눈부신 비상을 꿈꾸는
예수대학교여!
모두가 바라보는 화려하고
탐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이라면
세상 끝이라도,
그리스도예수께 잡힌바 된
그 길로 달려가십시오!

열정의 섬김으로 이어온 많은 선배들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희망의 꿈을 꾸십시오!
크리스천 미션 리더 교육의 세계적 명문으로
맘껏 비상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후원자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100년 그리고 또 100년을 향해 차곡차곡
하나님의 축복을 쌓으십시오.
예수대학교여!

2010년, 예수대학교가 개교한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예수대학교가 60주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까지 예수대학교와 함께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예수대학교의 머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모교를 위하여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며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문회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대학교는 개교 이래 60년 동안 우수한 간호 전문 인재 양성과 우리나라의 간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2004년에는 사회복지학부가 인가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4100명이 넘는 전문 기독교간호사와 기독교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나눔과 섬김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학교의 역사이며, 자랑입니다.

2010년,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종 학술 세미나, 기념음악회, 선교대회 및 글로벌 홍보부스관 운영, 역사비전관 설치, 기념화보집 발간, 총동문회 및 총동문의 밤 등 다양한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 비전관 설치, 기념화보집 발간은 예수대학교의 60년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며, 미래를 준비해가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국내외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열방으로 나가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막중한 비전과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도자를 육성하여 진리와 사랑을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을 공헌하는 것”입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예수대학교는 “세계 속에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크리스찬 미션리더 교육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 발전 목표와 전략을 구축하고 과제를 설정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써 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대학교가 60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기여를 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발전이 모교의 발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예수대학교의 이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대학교의 모든 동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광수 총장

예수대학교 동문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 양광자 총장

고 양광자 초대총장 추모예배





남가주 예수대학교 간호대학 동문회 주최
故 양광자 총장님 추모예배

일시: 2010년 9월 7일(화) 12시
장소: 연(유) 복회(6회) 동문역
2701 S Barrington Ave., West L.A., CA90064
☎(310)478-4283

제1부: 예배 시: 김대환 목사

목도 ————— 오두 함께
찬송 — 428 장 — 오두 함께
기도 ————— 성령회(원) 15인
성경구절 — “가치있는 삶” 히대복음 25:21
성경 — 548 장 — 오두 함께
찬송 — 548 장 — 오두 함께
제헌 — 주기도문 — 오두 함께
마태복음 23: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겸손한 종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2부: 교제의 시간(합침식사)

◆◆ 오늘 성도를 제공해주신 한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선 의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회교 신자님 분과 함께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
◆◆ 오늘 장소를 제공해주신 유복회 동문회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
◆◆ 한국 모교에 제직 중인 임복은 교수님 및 가족분들의 동참을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

▶ 미국 남가주동문회 추모예배 순서지

고 양광자총장 추모식 순서
전주 예수병원 간호대학교

2010년 10월 3일(주일) 오후 4시 30분 사회: 유난조 회장

초 경	사 회 자
찬 송	“고령과 수교가 다 지난 후” 289 장
기 도	김종숙선교사
성 경	유 19:25-27 윤명숙사모
선 교	“몸의 3대 혁신” 정혜경목사
기 도	선 교 자
약 사	허옥자장모
축 가	박정숙사모
인사와 양교	사회자
찬 송	“후일에 생명의 그늘에” 295 장
축 도	선교자

주 회: 전주 예수병원 간호대학교 비주동부동문회
추모예배장소: 뉴저지연일교회 (정성만목사 서무)
396 Broad Ave. Leonia, NJ 07605

약사

1940년 7월 16일 양반호점사님과 김오선전사님의 5남매중 4째로 일본 구주에서 출생

1959년 전주 예수병원 간호학교 졸업
서울 메디칼센터에서 근무

1966년 중앙대학교 영문과 졸업
한해이와 영국에서 간호사로 근무

1967년 미국으로 이민

1989년 Bos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취득

1989년 보교 전주 예수병원 간호대학교 총장 취임

2005년 모교 전주 예수병원 간호대학교 총장 재임

2007년 Boston에서 Florida로 이사

2010년 8월 12일 오후 9시 05분 플로리다 자택에서 소년

유 가 족 :
연나: 양총장
동생: 양태하(Mrs. Lily Park) 1040 SW Castaneda Lane
Pt. St. Lucie, FL 34953 772/924-5611

▶ 미국 동부 동문회 추모예배 순서지

예수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셨던 고 양광자 총장이 미국 플로리다의 자택에서 2010년 8월 13일 오전 9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다. 1989년 3월 처음 예수간호대학장으로 부임하여 2003년 4년제로 대학을 승격시키는 등 17년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 양광자 총장을 추모하며 예수대학교는 지난 8월 16일 오후 2시 Seel Chapel에서 내외귀빈과 학생들,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박용선 사무처장의 기도와 ‘요단강을 건너서(고린도후서 5장 1-10절)’라는 제목으로 김대용 목사(예수대학교 교목)의 설교가 있었다. 김대용 목사는 “우리에게는 임시거처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집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정정숙 교무처장의 고인에 대한 약력소개와 한혜실 학생처장과 김수지(전 예수대학교 이사,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박사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김수지 박사는 “친구이며 동역자였던 양광자 총장을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프며, 하나님에 대한 사

랑과 학교에 대한 열정이 그림다”며 고인을 추모하였다. 한혜실 학생처장은 “지난 7월 학교에서 양총장님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공로패를 수여한 소식을 가지고 총장님을 뵈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신 모습이었고, 천국만 사모하시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을 용서와 사랑으로만 채우신 성령충만한 모습이셨다”고 하며 “개교60주년행사 동영상 같이 보시며 너무 행복해하시고 모두를 축하해 주신 그 모습이 아직도 그림다”고 추모하였다.

서광수 예수대학교 총장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양광자 전 총장님은 자신의 영욕보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여 이 언덕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온 세계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이고, 학생들을 자식 삼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의로 복지인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이라며 추모객에게 인사말씀을 하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고 양광자 총장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함께 일했던 교직원과 많은 동문들은 남달랐던 고인의 학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떠올리며 큰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그를 추모하였다.

한편 고 양광자 총장이 소천하기 전 미국 남가주 동문회의 유복희 동문(6회)과 미국 동부 동문회의 문옥자 동문(10회)이 플로리다 자택을 방문하여 마지막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고 임종까지 지키며 유족과 함께함으로서 많은 동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남가주 동문회에서는 9월7일 유복희 동문택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으며 동부 동문회에서는 10월4일 뉴저지벤엘교회에서 추모예배를 드리고 고인을 추모하였다.



▶ 1999년 개교기념예배를 마치고 동문들과 함께한 고 양광자 총장



▶ 2010년 7월 12일 한혜실교수가 전달한 개교60주년 기념 공로패를 읽으시는 모습
▶ 사진 왼쪽부터 동생 양송자, 문옥자 동문, 고 양광자 총장, 한혜실 교수

고 양광자 총장 약력

출 생 1940년 7월 16일, 일본에서 출생 (만70세)

▶ 학력 및 경력

- 1959년 3월, 전주예수병원간호학교 졸업
- 1964년 2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사 취득
- 1977년 5월, 미국 우수터주립대학교 교육학석사 취득
- 1985년 5월, 미국 보스턴대학교 교육학박사 취득
- 1959~1976년 한국,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에서 간호사 역임
- 1989년 3월~2003년 2월, 예수간호대학장 역임
- 2003년 3월~2005년 10월, 예수대학교 총장 역임
- 1997~2005년,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 역임
- 1990~2005년, 인터서브 한국선교회 이사 역임
- 2010년 5월, 예수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
- 2010년 5월, 예수대학교 60주년 기념 공로패 받으심

▶ 예수대학교 재임 중 주요업적

- 1992년, Keller Hall 2층 종합강의실 개축, 4층 증축
- 1996년, Seel Chapel과 Prichard Hall 신축
- 1996년, 입학정원 200명 증원
- 1997년,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평가에서 시설부문 우수대학 인정
- 1997년, 간호학연구소 개소
- 1998년, 전자계산소 개소
- 2000년, 예수간호대 50년사 발간
-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코코모대학과 국제교류 협정체결
- 2002년, 미국간호사면허취득 교육프로그램으로 NCLEX-RN 프로그램 개설
- 2002년, 보건진료소 개소
- 2002년 11월, 예수간호대학교로 4년제 대학 설립인가
- 2003년, 대학본부 신축
- 2004년, 사회복지학부 인가
- 2005년, 예수대학교로 교명 변경

예수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행사



예수대학교는 2010년 6월1일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5월10일 **학술세미나** (주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 실습교육의 선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행사의 막을 올렸다. 25일에는 최신의 **글로벌간호 특강** (강사: 이해자 미국남 가주동문회 회장)이 있었으며 삼성문화회관에서 **기념음악회**가 있었다. 음악회는 재학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뮤지컬 '맘마미야' 공연과 예수병원합창단, 전주시 장로합창단, 동문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다. 26일에는 실채플과 체육관에서 동문 선교사들이 참여한 **선교대회**와 **글로벌 선교 홍보부스행사**가 열렸다. 27일 오전 11시에는 **기념예배 및 비전선포식**을 가지고 대학의 202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였다. 기념식 후에는 예수대의 60년 역사와 비전을 담은 **역사·비전관 개관식**을 대학본부 3층에서 거행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 총회**가 있었으며 이어 감격스러운 **동문의 밤 축하행사**가 열렸다. 개교기념예배에서는 예수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세웅** 제4,7대 이사장, **임재정** 제3대 학장, **양광자** 제1대 총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공순구**, **양순복** 증경동문회장, **김민철** 예수병원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문옥자** 재미동문, **이춘심** 동문선교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 실채플에서 열린 개교기념예배



▶ 역사비전관 개관 테이프 커팅식



▶ 역사비전관 내부 모습



▶ 켈러홀 체육관에서 개최된 글로벌 선교 홍보부스 행사



▶ 'GLOBAL PARTERSHIP' 을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

▶ '선교대회에서 각 지역 선교보고를 하는 동문 선교사'



이성옥선교사(20 회)
수리남



이춘심선교사(23 회)
네팔



서현정선교사(42 회)
예멘



김현수선교사(51 회)
우간다



▶ 기념음악회에서 재학생이 공연한 뮤지컬 '맘마미아'의 한 장면



▶ '예수병원 합창단의 합창(지휘 : 김호성)



▶ 캔들합창단, 동문합창단, 전주시 장로 합창단 등이 참여한 연합합창(지휘 : 김성지)



▶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실습 교육의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강사: DR. PAUL PHRAMPUS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



▶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최한 기념 학술대회



▶ 'RRT'를 주제로 열린 글로벌 간호 특강(강사: 이혜자 미국 남가주동문회 회장)



▶ 글로벌 간호 특강 후 교수와 동문이 함께



▶ 국내외 동문이 참석한 총동문회 총회



▶ '동문회 총회 후에 대학본부 앞에서 서광수 총장과 기념촬영



▶ '미국, 독일, 캐나다, 파라과이 등 해외에서 참석한 동문들



▶ '동문의 밤을 축하하는 2학년 남학생들의 공연



▶ '김경림 회장이 모교 은사와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동문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김강미자 전 총장에게 증정하면서...



▶ '새만금과 부안' 격포지역을 여행하며 즐거워하는 동문들



▶ 졸업회기 별로 축하잔치에 참여한 동문들

Q. 예수간호대학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전주여고를 1년쯤 다녔을 때, 은행원이 되라는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 친구 분(전주여상 교장선생님)의 권고로 다시 전주여상에 다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전주여고에서 왜 옮기냐는 얘기를 많이 했지요. 간호학교는 친구들과 우연히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16등으로 붙었어요. 당시에는 등수대로 번호가 매겨졌고 나중에는 2번이 되었지요. 졸업 후 예수병원 서무과장이 여상에서 배운 주산 실력을 알고 서무과에 근무하기를 요청했어요. 후에 변마지 교장선생님이 미국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간호사가 지금 무엇을 하냐고 하시며 기숙사 책상위에 간호사 유니폼을 갖다놓고 부르셨지요.

Q. 예수병원 근무 당시, 어떤 환자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주로 정부지원의 무료 환자들, 암 환자, 화상환자, 양젓물 중독환자들이 많았고, 70~80%는 위수술, 청각수술, 폐수술등을 많이 했죠. Dr. seel의 12시간짜리 head& neck 수술도 유명했어요.

Q. 미국엔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요?

1963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 영문과를 4년 더 다닌 뒤, 간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당시 콜럼비아 대학병원에 1년 교환프로그램이 있음을 알고, 변마지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지원하여 다녀올 수 있었지요. 당시, 교환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서 6개월마다 20명을 뽑는데, 그때 한국 간호사 4명중 한명으로 뽑혀 함께 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오랜 미국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Q. 에디오피아 선교를 다녀오셨다구요?

에디오피아 명성기독병원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하고 작년 4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간호부장으로 일하면서 처음 3개월 동안은 상황 파악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였지요. 장기선교를 하다보면 단기선교 보다 알찬 계획과 목적이 흐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잘 계획하여 먼저 단기선교를 해보도록 권하고 싶어요.

Q. 삶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있으시다면요?

내가 40년 동안 배운 것을 이디오피아에 가서 모두 활용하였던 것이 감사해요. 그동안 배운 인생의 지식과 지혜들, 미국의 수술실 경험과 내과 외과 등 다양한 경험들, 교회에서 장로로서 리더하며 가르쳤던 경험들 덕에, 이디오피아의 무질서한 병원체계의 상황 속에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 문목자 동문 부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뉴욕에서 모교를 방문한

문목자 동문(10회)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문목자 동문을 만나서

때 : 2010. 6. 4(금) 장소 : 전주 꽃꽃세상 채식뷔페

대담 : 심정하(예수대학교 교수, 37회)

정리 : 조혜숙(예수병원응급센터 간호사, 44회)

Q.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모로 열심히 것 같아 좋구요. 인간미 있는 간호사로서 사람 속에서 어울리며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간호사로서 항상 사명감과 나눔의 삶을 상기하며 살도록 권하고 싶어요. 때론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도 승리하며 주도권을 가지신 것처럼,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길 바라요.

Q. 모교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푹푹하니 좋은걸요. 예전의 정감 있는 다정한 동산에 다시와 있는 듯 학생시절이 상기되네요. 부단한 교수진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4년제를 이룬 것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두 개 학과의 단과대학 같은 분위기라서 교수진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학교가 건실하게 커갈 수 있길 소망해요. 미국에서도 동문들이 학교가 잘되는지 못되는지에 관심이 참 많아요.

Q. 모교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단기 기독교 간호사를 양성한다는 의미보다는, 학생 한사람 한사람 모두 개인적으로 신앙심을 잘 가꾸어 따뜻하고 소중한 손길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길 바라요. 또 우리 졸업생들은 박사도 많이 해서 교수로 진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혜자

남가주 동문회장(21회)

예수대학교 개교 60주년 행사 참관기

2010년 5월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달이다.

그렇게도 간절히 만나보기 원했던 동기들과 모교 스승님들, 너무나도 발전된 모교에 얼마나 가슴 뭉클해하고 자랑스러워했는지 ... 진정 꿈결처럼 멋진 시간들이었다.

2009년 8월에 받아든 “예수대학교 동문회 소식”으로부터 “개교 60주년행사”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된 후에 김금자 교수님과 서신연락, 서광수 총장님, 한혜실 교수님, 윤진 교수님등과의 e-mail을 통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모교 회갑잔치 참여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사실 모두들 숨돌릴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곳 동문들인지라 서로 자주 만나 아끼자기한 시간을 갖는 것조차 아주 힘든 일이지만 모두들 마음 속 한 켠에는 늘모교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이 간직돼있다. 동문회원들로부터 모교 큰 잔치 참여를 승인받은 후 이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나 또한 바쁜 직장생활에 쫓기는지라 솔직히 모교의 여러 분 그리고 이 곳 동문회원들의 격려가 있었기 망정이지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조바심했다. 어쨌든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편안해지고 수행해야 할 일 네가지를 정했다.

① 기념예배 특송과 총동문회밤 행사에서 부를 노래로 “주님의 능하신 손길” 그리고 “친구여”를 각각 선정했다. 모든 일에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이해숙(24회)회원의 제안으로 여러차례 예행연습을 하였고 unoform을 마련하기 위해 모교의 한혜실 교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동문들의 사정상 참석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부득히 자유복장을 하기로하고 아울러 특송도 “친구여”만 부르기로 했다.

② 각각 다른 간호분야에서 일하는 이 곳 동문들의 임상경

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실무현장”을 후배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고 본인을 발표자로 정했다. 성인중환자실(ICU)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재 이 곳 미국병원들이 도입해 시행하고있는 “Rapid Response Team(신속대응팀)”을 Global Lecture의 주제로 선정했다. 실제로 본인은 병원에서 이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있다.

③ 총동문회밤에 내용을 남가주동문회 의 32년 역사를담을 “Memory Lane”제작인데 이 추억의 오솔길에서 가족같이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동문들의 삶의 자취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았다. 5개월여의 시간을 들여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 했으며 이를 CD의 형태로 만들어 이 곳동문들에게도 드렸다.

④ 남가주 동문회원들의 모교사랑과 기도와 협조로 \$15,540을 총동문회 장학재단기금으로 모으게 됐다. 이 금액 중 \$10,000은 제7회 김순옥 동문께서 내주신 것이다.

사정이 허락되어 모교의 큰 잔치에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회원들(6회 김홍자, 11회 김혜숙, 20회 조옥수, 21회 이혜자, 23회 오경희, 24회 이혜숙)이 각자 편리한 일정에 따라 모교를 향해 떠나 5월 23일에 전주에 소재한 전주관광호텔에서 합류했는데 엇그제 보았던 얼굴들이지만 어찌나 반갑고 기쁜지 모두들 들떠있었다. 또 동부에서 오신 양정순선배님(9회, Philadelphia), 문옥자선배님부부(10회, New York)와 김홍숙선배님(11회, 파라과이 선교사)들도 우리와 같은 숙소를 사용하시게되어 말그대로 큰 식구가 되었다. 끝없는 옛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밤을 지새우며 지나간 학창시절의 추억을 더듬건만 가슴속으로 밀려오는 회한의 정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오늘 이 밤의 정경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겠다.

36년이란 시간이 흘러 모교의 이전된 새 campus에 들어섰는데 참 감회가 새롭다. 그 사이 몰라 보도록 훌륭하게 발전된 모교, 우뚝우뚝 높게 솟은 건물들, 인결은 모였으나 산천은 의구치 않구나. 행복한 낯두리를 하며 상냥하고 옛때 보이는 후배들의 안내를 받아 총장실에 들어서니 서 광수 총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신다.

서로 여러 덕담이 오고 간 후 총장님께서 아무쪼록 일주일 행사를 의미있고 기쁘게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매일 매일의 행사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의미있는 남가주 동문회원들은 아주 신이 났다.

5월25일 화요일 오전 10시, 내 생애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날이다. 정성껏 준비는 했으나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마른 침을 몰래 소리나지않게 삼키며 용기를 내서 청중들을 향해 “여러분 RRT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도입하여 시행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 당연히 생소한 말이겠지. 이 강연의 핵심되는 부분 즉 SBAR(Situation: What is going on with patient?, Back ground: What is the clinical background?, Assessment: What do you think the problem is?, Recommendation: What would you do to correct the problem?)를 한국어발음으로 예수바(---) 예수 바라보십시오)로 읽게 해서 쉽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있게하는 소리연상법을 적용하니 대부분의 청중들이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사 전달이 잘 되었는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호사들의 임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하는 바람 뿐이다. 강의를 끝나자 친정 언니(11회 이숙자)께서 나의 강연을 모니터링 하셨는지 간호원이라 하지말고 간호사라고 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다.

재학생들로 구성된 “맘마미아” 뮤지컬은 전문적인 뮤지컬팀에 결코 뒤지지않는 뛰어난 연기자들이었다.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갖춘 미래의 간호사들의 새련된 연기에 매료되어 황홀지경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기립박수를 몇 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총동문회의 밤, 오랜 기간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동기들과 동문들을 잠시 후 만나보게 된다니 설레는 가슴을 누를 수가 없다. 서로 서로 열싸안고 반가움과 기쁨의 합성을 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얼마나 보고싶었던 얼굴들이던가... 여태까지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낸다. 아리파웠던 이십대 초반의 선녀들이 이제는 인생의 세파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마의 잔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의 중년들로 바뀌어져 있다. 도도한 시간의 흐름에

마냥 초연해질 뿐이다. 해외동문들의 중창곡 “친구여”에 온 동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창을 한다. 아! 아름다웠던 시절의 친구들이여, 꿈 속에서라도 만나기를 얼마나 애타우며 바랬는데... 남가주동문회의 역사인 “Memory Lane”이 상영될 때 모두가 숙연해진다. 먼 이국 땅에서 젊음을 불사르며 굳건하게 인생의 항해를 하고있는 우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가 터져나온다.

우리 해외동문들은 주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개척자적인 삶을 영위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앞으로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남가주동문회는 관용과 이해심 그리고 봉사정신으로 동문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 다른 대학교 해외동문회와도 교류를 하려한다. 남가주동문회는 외람된 말이지만 다른 어느 동문회보다 우의가 깊고 사랑이 넘치며 서로 잘 보살피는 우등회원들(?)의 모임이다. 세명의 회원은 남가주한인간호협회의 임원진에 속해 있으면서 매우 활발하게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있다. 이들은 협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귀한 존재다. 이런일을 통해 모교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이번 모교의 개교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욱 모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지고 한편으로는 동문회원들과의 우정을 돈독히하는 계기가 됐다. 모교를위해 보다 효과적인 유형적, 무형적지원 방책이 무엇인지 여러 동문회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해야겠다. 다시 한번 이 아름답고 뜻깊은 개교 60주년 큰잔치를 통해 저로 하여금 발전된 모교를 둘러보고 또한 잊을 수 없는귀한 체험을 하게하고 동문들과의 우정을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기회와 시간을 주신 예수대학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od Bless Jesus University!



개교 60주년, 졸업 25주년 동문 재상봉을 마치고



최경애
예수병원 호스피스간호사 (32회)

학 교 다닐 때는 시간 지나가는 것이 너무 느려 지루하기만 했는데 졸업하고 이런일 저런일로 분주하다보니 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2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정신없이 눈앞의 현실적인 일들만 해결하며 살다가 동문재상봉 학교행사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할지 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뿐이었다. 사실 선배님들이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봤지만 그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그 무엇으로서 마음속에 부담감만 있었다. 학창시절에 만나고 헤어졌던 한두명도 아닌 친구들을 찾아보고 연락할 용기를 낸다는 것이 커다란 모험 같았다. 아마 혜순이 친구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나는 나의 쉽지 않은 결단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용기를 냈다.

이 번 행사를 위해 몇 차례 사전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들은 졸업앨범 속에서 80명이 넘는 숫자의 친구들 얼굴을 떠올리며 학창시절을 되새겨보았다. 세월의 길이에 맞게 적당하게 변해진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웃고 그 시절을 이야기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행사 준비가 즐겁게 느껴지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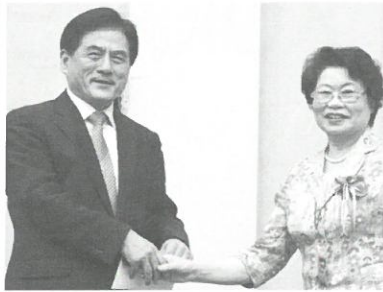
했다. 졸업 후 한 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아직도 연락할 수 없는 친구들. 사진 없이 이름만으로는 아무리 애써 봐도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 친구들의 연락처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아내고 핸드폰문자로, 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일이 반갑고 기쁘고 가슴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염치없기도 하고... 참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학 창시절에 왜 우리는 끼리끼리만 어울리며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 많은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되었고 특별히 다시 만날 기회도 없었으니 세월이 더 흘러 길가다가 마주쳐도 타인처럼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을까? 친구들 중에는 투병중인 친구도 몇 명 있어서 안타까움을 기도로 달래기도 했다. 또 몇몇 친구들은 익숙하고 정든 이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 이 글을 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영기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개 교 60주년 행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준비하느라 수고한 손길들을 생각하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준비한 많은 행사를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다. 우리 학창시절의 나이팅게일 음악회와 비교해보니 이번에 준비한 기념 음악회의 규모는 매우 크고 다양해서 감동이 컸고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음악회를 지켜보았다.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을 초청한 간호선교 대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재학생들에게는 좋은 모델이며 도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동문의 밤 행사를 통해 많은 선배님들이 학교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다.

감 격스러워하시는 표정과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좋은 추억으로 마음깊이 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우리도 다음에 이런 추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난 5월의 감동들을 떠올려 본다.



2009

동문재상봉



2009년 5월 29일 예수대학교 제59주년 개교기념예배가 실채플에서 있었다. 이날 졸업 50주년(6회)과 25주년(31회)이 되는 동문들의 뜻깊은 재상봉이 있었으며 재상봉을 맞이한 동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학교 발전기금을 서광 수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6회에서는 고유근, 김연자, 박순옥, 서점순 동문이 참석하였고 31회는 전명숙, 우정순, 육미이, 이은하, 이마숙, 박정자, 강신자, 김은실, 남미숙, 박미경, 송계숙, 육현숙, 이금선, 이명남, 장예선, 정향심, 조경희 동문 등이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2010

동문재상봉

2010년 5월 27일 개교 60주년 기념예배에서는 7회 동문의 졸업50주년 재상봉과 32회 동문의 졸업25주년 재상봉이 있었다. 이날 7회에서는 엄정님 동문, 32회에서는 최경애, 김남균, 김혜심, 고남희, 정미경, 정미숙, 박복임, 이옥희, 조은주, 최윤정, 최혜순, 최영희, 진선미, 이복경, 박경자, 함선희, 김시은 동문 등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정성을 모은 발전기금을 학교에 전달하였다.





유애령 동문 (50회)

저는 KOICA 단원 유애령입니다.



교수님, 선배님들과 후배님 그리고 동기들.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은 제법 추워져 겨울을 준비하고 있겠군요. 여기 몽골은 9월에 첫눈이 내린 후, 이미 추운 겨울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마주친 집사님은, 순간 제가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레임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NGO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NGO라는 명칭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막연하게 자원봉사자로 일하겠다고 생각만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하고자 원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응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시조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봉사하는 것이 마음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학교사를 시작하면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전문직을 갖기 위해 간호대학을 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수를 하고 다시 수능을 보고 2002년 예수간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코이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자원 자격조건이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임상경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졸업 후 임상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국대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후 코이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4월 몽골로 파견되었습니다.

제가 코이카를 처음 알게 되어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요. 코이카는 제 목표에 또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현재 몽골 바트숨베르 국립요양원 간호단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85주년을 맞는 요양원은 몽골에 하나 밖에 없는 국립 요양원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약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4시간정도 소요되는 작은 시골마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며 가끔은 기차역에서 마을까지 1시간 반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만든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욕창이나 상처를 소독 관리합니다. 그 밖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을 감별하여 1차 진료후 약물을 제공하고, 마을사람들의 급성상처나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 외에 외부와 연계하여 부족한 약물을 지원받거나. 의료봉사활동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에게 찾아오는 일을 가능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직원교육관련 업무를 하고자 시도하지만, 워낙 교육과 관련하여 폐쇄적인 분위기라서 교육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활동이 끝나면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더 많은 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력을 더 많이 쌓은 후에는 국제원조와 관련되어 일하려합니다. NGO 또는 GO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욱 흘러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모두가 같이 모여 얼굴을 보며 웃으면서 인사 나누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자신을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 예수간호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 설립

예수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동문회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1구좌를 10만원으로 정하여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동문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0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1억 3천여만원이라는 큰 기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특별히 예수병원에 재직 중인 동문 대부분이 (274명) 기금에 동참하고 미국 남가주 동문 34명이 \$15,540을 보내오는 등 국내외 동문이 힘을 합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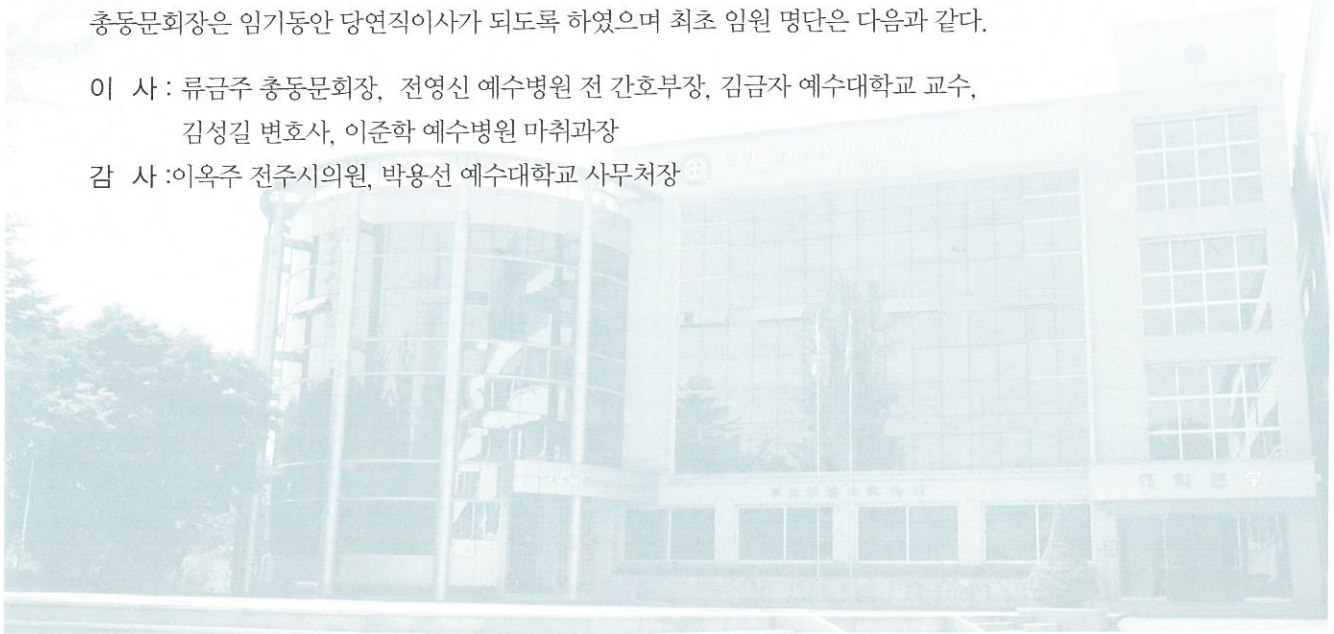
총동문회에서는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에 모금된 1억 3천여만원과 그동안 장학금으로 적립해온 1억 5천여만원을 합하고 평생회비에서 4천만원을 차입하여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평생회비에서 일부 기금을 차입하는 문제는 지난 7월 27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였었다. 이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총동문회 류금주 회장, 전영신 감사, 윤진 총무, 장영숙 간사, 김금자 예수대학교 교수, 박용선 예수대학교 사무처장을 정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장학재단 허가청인 도교육청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고 11월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장학재단의 명칭은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이며, 장학재단의 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수대학교 재학생과 동문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함이다. 장학재단의 사무실은 예수대학교 본관 동문회실 204호실에 두기로 하였다.

장학재단의 임원은 이사 5인과 감사 2인이며,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이다.

총동문회장은 임기동안 당연직이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최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 사 : 류금주 총동문회장, 전영신 예수병원 전 간호부장, 김금자 예수대학교 교수,
김성길 변호사, 이준학 예수병원 마취과장
감 사 : 이옥주 전주시의원, 박용선 예수대학교 사무처장



회 의 개 초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개최된 총동문회
회의 내용입니다.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명	일시	주요 안건	기타 안건
제56차 정기총회	2009. 5. 29(금) 오후 1시 45분	1. 60주년 행사 준비건 - 60주년기념 모금 금액 및 사용 건	
상임이사및 기대표회의	2009.6.30(수)	1. 60주년기념 모금 추진	
제57차 정기총회	2010. 5. 27(화) 오후 1시 40분	1. 임원 선임 건 2.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 3. 2010년도 예산심의 4. 장학재단 설립 건	1. 회계연도 변경 건 2. 회칙 수정 건
상 임 이사회	2010. 4. 15(목) 오후 5시 20분	1. 회계보고 : 2009경상비 결산 및 2010년 경상비예산안 2009년도 이사회비, 평생회비, 장학기금 결산 및 2010년 예산안 2. 장학재단 설립 건 3. 동문의 밤 행사 준비 건	1. 동문회보 편집위원 위촉 건
	2010. 6. 18(목) 오후 2시	1. 동문회 장학재단 설립 건 1) 기금 조성 건 2)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건 2.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재편성 및 예산 수정건 3. 임원 보선 건 4. 회칙 수정 건 5.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발의	
	2010. 7. 16(금) 오후 4시	1. 임시총회 안건 준비 건 - 회칙 수정 건 - 평생회비의 장학기금 이관 건 - 예산 재편성 및 예산(안) 수정 건	회칙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김경림동문, 김은숙동문2인을 추천
	2010. 8. 12(목) 오후 4시	1. 동문회 장학재단 설립 건 - 준비위원 선출	양광자 전 총장 소천 시부의금 결정
임시총회	2010. 7. 27(화) 오후 4시	1.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2010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건 2. 임원 보선 건 3. 장학재단 설립 건 4. 회칙 수정 건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발기인, 임원구성 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임 원 명 단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010. 6.1~
2012. 5. 31일 까지
이다.

회 장	류금주(18회)	예수병원, 샘 병원 전 간호부장
제1부회장	유금희(25회)	예수병원 간호부장
부 회 장	이금자(23회)	중산어린이집 원장
	유금남(28회)	전주병원 간호부장
	이옥주(28회)	전주시 의원
	최은주(41회)	전북대학교 병원 간호사(원내 예수간호대 동문회장)
총 무	윤 진(27회)	예수대학교 교수
	이효실(29회)	예수병원 간호과장
서 기	이은규(22회)	예수병원 교육 수간호사
	김은실(31회)	예수병원 수간호사
회 계	유필숙(25회)	예수병원 간호과장
	함선희(32회)	예수병원 수간호사
감 사	전영신(23회)	전라북도 간호협회 전 회장, 예수병원 전 간호부장
	한혜실(26회)	예수대학교 교수

해외동문



● 미국 남가주동문회

2009년 9월9일 한경희 회원이 직접 모교를 방문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10년 3월13일 정기모임을 강옥수 회원덕에서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하귀례 전 교수님께서 예배인도해 주셨습니다. 5월 모교 60주년 행사에 김홍자, 김혜숙, 강옥수, 이해자, 오경희, 이해숙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에 박병숙 회원(32회)이 UCLA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7월17일에 오경희 회원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혜실 교수님이 오셔서 학교소식과 양광자총장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9월7일 유복희 회원덕에서 고 양광자총장님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24일 서광수총장님이 LA를 방문하셔서 김 선 회원(16회)덕에서 환영만찬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광수총장님께서 학교현황과 비전에 대해 말씀하셨고 동문들은 더욱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혜자 회장)

● 미국 동부 동문회

지난 10월4일 뉴저지벨엘교회에서 고 양광자 총장님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권난초 회장)



● 임안자 동문 (8회, 스위스 거주, 전주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모교 방문

스위스에 거주하고 전주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안자 동문이 2009년 10월 남편과 함께 모교를 방문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 신차남 동문 (30회) 미국 Indiana State University (Terre Haute, IN)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

신차남 동문이 2008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4년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간호학과 간호연구를 강의하고 있다. 신차남 동문은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논문: Predictors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y Eating of Korean Adults in the United States)를 취득하였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Delta Lambda Chapter of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로부터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International Orem Society for Nursing Science and Scholarship에서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국내동문



● 김강미자 전 예수대학교 총장(15 회) 황조근정훈장 수상

김강미자 전 예수대학교 총장의 황조근정훈장 전수식이 2009년 9월 3일 모교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황조근정훈장은 교육계에 헌신봉사한 공로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여 수여한 훈장이다. 전 교직원의 뜨거운 축하를 받은 김강미자 전 총장은 우리 대학 교직원의 협조가 있었으므로 오늘의 영광이 있을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 차혜영 동문(21 회) 마산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차혜영 동문이 경남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이며 (사) 경남 복지정책 연구원 이사 (사) 경남 복지 정책 연구원 노인의 전화 대표 (사) 한국 노인의 전화 경남지부 지회장 (사) 경남 기독 호스피스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립 서성 어린이집을 10년 4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마산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연합회 회장, 한국 영유아 보육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 김희자 동문(26 회) 군장대학 간호과 전임교원으로 임용

김희자 동문이 지난 2010년 3월 군산시에 소재한 군장대학 간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김희자 동문은 예수병원 내과중환자실과 익산시보건소에 재직했었으며 2006년 8월에 전남대학교에서 간호학박사학위를 취득(논문: "향기요법 마사지가 폐경여성의 복부비만과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하였다.



● 이은희 동문(38 회) 혜천대학 간호과 교수로 임용

이은희 동문이 2010년 3월 대전시에 소재한 혜천대학 간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은희 동문은 호주 뉴캐슬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하였었고 예수대, 충주대, 건양대에서 강의하였었다.

예수병원
동문

● 전영신 전 간호부장(23회 동문) 국제간호협의회 총회참석

2009년 6월29일 부터 7월13일 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시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간호협의회 총회에 전북간호사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배은하 전 부간호원장 예수병원 방문

2009년 8월6일 1969년부터 1977년까지 9년 동안 예수병원 부간호원장을 역임하고 예수대학교에서 영어교사로 봉사한 배은하 전 간호원장이 예수병원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현재 미국 켄터키주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영성지도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다.



● 유금희 간호부장(25회 동문) 취임



2009년 10월 1일 유금희 간호부장이 취임하였다.

유금희 간호부장은 간호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 존중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 정직〉을 motto로 삼고 최상의 간호실현을 향해 힘과 지혜를 새롭게 모아가자고 하였다.

● 조점엽(22회 동문) 장은숙(20회 동문) 수간호사, 자랑스러운 간호인상 수상

조점엽, 장은숙 수간호사는 2009년 하반기 정년퇴임에 배에서 자랑스러운 간호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병원간호사회는 한평생 젊은 날 동안 환우들을 섬기고, 숭선수범하며 후배들에게 본이 된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간호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전북일보, '여성의 힘'에 전영신 전 간호부장(23회 동문) 소개

전북일보 2009년 7월 22일자 '여성의 힘' 코너에 예수병원 전영신 간호부장이 소개됐다. '간호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보듬는 일'이란 제목으로 병상의 환우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33년 5개월 동안 환우와 함께 한 이야기가 실렸다. 전영신 부장은 "충분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위한 전인 간호를 실현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후배 간호사들이 헌신과 봉사로 백의의 천사의 새 역사를 일궈가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9월 25일에는 전영신 전 간호부장의 명예 퇴임 축하예배가 병원 강당에서 있었다. 김민철 병원장은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배의 길을 열어주고 떠나는 결단력 있는 훌륭한 모습"과 "34년 동안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의 역사를 이어온 그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전영신 부장은 병원장의 공로패, 간호부의 감사패와 병원간호사회의 자랑스러운 간호인상을 수상하였다.



예수병원
동문

● 간호부 병원110주년 기념 화보집
'아름다운 동행' 발간



예수병원 간호부는 2009년 병원 개원 110주년을 맞아 간호부 110년의 역사와 간호부 사업 소개, 부서별 소개, 간호부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화보집 '아름다운 동행'을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간호부는 그동안 자료수집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역대 선교사, 간호부장들로부터 고이 간직했던 귀한 사진과 자료를 모으는 노력을 하였다. '아름다운 동행'은 예수병원 110년의 생생한 간호 현장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통해 그들의 한없는 섬김과 헌신을 다시 음미하고 간호 현장의 나를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고 있다.

● 채영희 수간호사(23회 동문)
병원 간호사회 모범상 수상

2010년 3월 23일 채영희 수간호사는 항상 겸손과 미덕으로 솔선하며 환자간호에 열심을 쏟은 결과로 병원간호사회가 수여하는 모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34년의 긴 세월을 열정과 섬김으로 환우 곁을 지켰던 채영희 수간호사는 2010년 상반기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였다.



● 간호부 10월04일 천사데이 행사 펼쳐

2010년 10월 4일 간호부는 입원 생활로 심신이 지친 환우 및 내원객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천사데이 행사를 가졌다. 해마다 예수병원 간호부는 천사데이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옥주 수간호사(28회 동문)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

이옥주 수간호사는 예수병원에 28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았으며 평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정치에 뜻을 두고 있던 바 전주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2010년 6월 2일 국민참여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 이정옥 간호사(41회 동문)
예수대학교 신임교수임용

예수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 간호사 및 신경외과전문간호사, 통증전문간호사,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이정옥 간호사가 예수대학교 교수로 2010년 10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이정옥 간호사는 예수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원광대학교 의학과에서 파킨슨병서모델에게 뇌피질 전기자극의 효과에 대한 실험으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2009~2010년 전문간호사 -seven star- 탄생

예수병원에 재직 중인 7명의 동문이 대학원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환우를 위해 더욱더 준비된 자세로 자신을 활용하고자 열심히 내달린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노인 전문간호사: 채영희 (23회), 박양숙 (28회), 유정애 (29회),

*중양 전문간호사: 최경애 (32회)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김은숙 (25회), 김정란 (38회), 이현주 (38회)

제2대 김강미자 총장 이임, 제3대 서광수 총장 취임식

예수대학교는 2009년 3월5일 제2대 김강미자 총장 (15회) 이임과 제3대 서광수 총장 취임예배를 드렸다. 제2대 김강미자 총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그동안 교수로 총장으로 열심히 달려왔으며 재임기간 적극 협력해주신 예수병원장과 교수,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였다.

제3대 서광수 총장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총장으로 부르고 세우시며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뒤 “재임기간 동안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성을 갖춘 신앙인을 길러내겠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전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핵심적인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장·단기적인 비전과 앞찬 전략을 세워 추진하겠다”며 “비전이 실천된다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신명나는 분위기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간의 신뢰와 자존감 속에서 대학은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설교를 맡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전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교육의 실천적 사명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가장 위대한 실천적 지식은 하나님입니다”고 강조하며 “기독교적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향을 잃지 말고 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축사와 격려사는 김운수 전남대학교 총장,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관 이원근 국장, 아·태지역 교육의원연맹 부의장 김영진 국회의원,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황우여 국회의원, 삼광기업(주) 정병섭 회장이 하였다. 이사장 김동문 목사(전주완산교회)는 김강미자 총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김강미자 총장은 이날 모교 차세대 육성장학금으로 천만원을 기부하였다.

서 총장은 광주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코헨신학대학교 기독교육학 명예박사를 취득했다. 세에덴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 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과장,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전남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 선정

예수대학교는 2009년 5월 KOICA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KOICA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이해증진 및 지지기반의 확보를 위해 2009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대학이 선정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이수한 1학년 재학생들 중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26명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KOICA 해외현지 사무소와 사업장뿐 아니라 NGO 및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 등을 방문해 국제개발의 다양한 모습을 견학하였다.

네팔 탄센 간호대학과 협약체결

예수대학교는 2009년 9월 네팔의 탄센 간호대학과 상호 학술교류 및 교원과 학생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탄센 간호대학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1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999년 카트만두교육센터로부터 인가를 받은 3년제 간호대학으로 현재 재학생은 300여명이고 76명의 교수와 4명의 선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예수대학교는 2009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총 9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교과부는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였는데 우리대학교는 모든 평가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교과부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대학은 간호학 실습교육의 현대화, 교수학습방법의 선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본어 강좌, 토익강좌, 의료통역전문가과정, NCLEX-RN 과정 등록 지원,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 1인 3자격증 취득 지원, 인도, 케냐,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해외현장실습 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지정



2009년 9월 29일 예수대학교와 전라북도 도청은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 및 협약식을 갖고 도내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가족의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를 예수대가 전담하기로 협약하였다. 재난심리지원센터는 풍수해나 화재 등 각종 재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나 피해 규모가 큰 사례에 대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된다

예수대학교 UI (University Identity) 변경



예수대학교는 2009년 11월 1일부터 UI를 새롭게 변경하였다. 변경된 UI는 '진리(Truth)와 사랑(Love)'이라는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예수대학교를 상징하고 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형태는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를 넓히고 사랑을 쌓아가는 실천 중심의 교육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예수대학교의 위상과 발전상을 보여주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동문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예수대학교 서광수 총장은 2009년 11월 19일 동문회 임원과 기대표를 초청하여 학교 현황 및 개교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 학교발전에 협조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첫 졸업생 국가시험 합격율 전국 최고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첫 졸업생들이 2009년 응시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 9명 졸업생 중 8명이 합격 89%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합격률은 전국 합격률 31.1%에 비해 무려 3배 가깝게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서 우리대학 사회복지학부는 신흥명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캄보디아 헤브론 의료선교병원 자매결연

우리대학교와 캄보디아 헤브론 의료선교병원은 2010년 6월 23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수대학교와 캄보디아 헤브론 의료선교병원은 교수 및 전문인 상호 인력 교류, 학술정보 협력체제 구축, 공동프로젝트 운영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상호 긴밀한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국내외 선교 봉사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임교수 임용

예수대학교는 2009년 3월 김대웅 교수(교목), 2010년 3월 김보환 교수(간호학부), 마이클 브로(교양영어) 교수, 2010년 10월 이정옥 교수(간호학부, 41회 동문)를 임용하였다.

평생교육원 간호학사학점은행제 인증평가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증평가가 한국교육평가원 주관으로 2010년 5월 시행되었다. 학점은행제는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이수과정을 통해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과정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우리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 「미취업 대졸생 지원프로그램 사업」에 선정

우리대학교는 지난 2010년 8월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미취업 대졸생 지원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4학년 재학생과 최근 졸업자 중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활발한 취업지도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 간호대학생 2명 우리대학에서 실습교육



우리대학교와 자매결연 학교인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 간호대학에서 3학년 남학생 2명(Preou Chiva, Sang Sothea)이 2010.9.24 -10.22 까지 한달간 우리대학에서 임상실습을 하였다. 예수병원 일반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등에서 주로 실습하였으며 마음사랑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보건소, 노인요양병원 등을 견학하였다. 이들은 실습기간 동안 매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며 지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하였다.

60주년 기념 총동문회 장학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 7.1 ~ 2010.10.30)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1	1	채정희	1	59		임명심	1	117		박정숙	1.4	175		박정순	1
2		오정옥	1.4	60		김민순	1	118		최명희	5	176		박양숙	1
3		박삼주	1.4	61	14	강경선	1	119	24	김경림	100+20	177		김경희	1
4		박해옥	1	62	15	김강미자	20	120		유화숙	10	178		장정숙	1
5	2	공순구	10+10	63		오연순	2	121	24	안명심	5	179		유금남	3
6		김은옥	1	64		최학례	3	122	24	김숙희	1	180		권경희	3
7	3	구원예	1.4	65		양정숙	2	123		김순애	1	181	28	김경신	10
8		박봉옥	1.4	66		최미자	10	124		배은경	2	182		방현숙	10
9	4	이인수	1	67		김현애	3.6	125		황영숙	2	183		조현오	2
10		황희심	1	68	16	김금자	10	126		양명순	5	184		김인경	2
11		윤주인	1.4	69		박민자	2	127		함선희	1.5	185		소성섭	2
12		조금주	2.4	70		황성자	5	128		정강숙	2	186		최애영	1
13		김완주	6.1	71		박현숙	2	129		이명숙	2	187		장???미	1
14		유애수	6.1	72		김인숙	2	130		김옥순	2	188		이영례	1
15		나영옥	1.4	73		심영희	2	131		이은희	2	189		김원경	1
16		양순복	10	74		주정남	2	132		이양순	2	190		김선화	1
17	5	고정원	1	75		박경신	2	133		이인순	5	191		한현진	1
18		황영례	1	76		윤행숙	2	134		유계숙	3	192		박현전	1
19		배영화	3	77		지옥순	2	135		윤선자	10	193	29	김하숙	2
20		심영희	2.4	78		김선	1.4	136		이길숙	2	194		이성숙	1
21		송영숙	1.4	79	17	김명숙	2	137		김영희	5	195		이효실	1
22		이준례	1	80		최선숙	1.4	138		강신희	5	196		유정애	2
23	6	서점순	1	81		김길례	1.4	139		이혜숙	1.4+0.87	197		양명석	5
24		김연자	1	82	18	류금주	5	140		박옥순	10	198		왕혜경	3
25		유복희	1.4	83		박정선	3	141		동기희	5	199		이현옥	1
26		나삼덕	1.4	84	19	정성희	1.4	142	25	유금희	3	200		김경희	1
27		정정자	1.4	85		송국희	1	143		유필숙	1	201		허미양	1
28		고유근	1	86	20	장은숙	1	144		이정희	1	202		김에스터	1
29	7	염정남	1+5	87		김봉선	3	145		정하숙	3	203		오인옥	1
30		김순옥	11,210,912	88		강옥수	1.4	146		김차옥	1	204		김영순	1
31		고필례	1.4	89		허민숙	1	147		김은숙	1	205		송호은	1
32	8	백영애	2	90		최옥진	1	148	26	한혜실	5	206		김길자	1
33		양금옥	1	91		이혜숙	1	149		호순환	1	207		백초숙	1
34	9	곽광자	6	92	21	차혜영	10	150		최백숙	2	208	30	김난숙	1
35		양정순	1	93		신우수자	\$2,000	151		이명숙	1	209		김미선	1
36	10	전혜경	5	94		이혜자	8.1	152		최은실	1	210		이미선	1
37		이순자	10	95		한경희	1.4	153		이배옥	1.4	211		이순복	1
38		진청자	1.4	96		홍의숙	1.4	154		양복순	5	212		이은규	3
39		황송자	1	97		서경자	1	155		옥루수	2	213		박효순	1
40		문옥자	3,603,714	98	22	송성희	2	156		김희자	5	214	31	전체	30
41	11	이숙자	1	99		조점엽	3	157		양미자	5	215	32	김현주	1
42		김혜숙	1.4+\$500	100		정여숙	5+5	158		박선옥	1	216		성경자	1
43		김홍숙	12.3	101		김형자	2	159	27	정명희	10	217		손영자	1
44		오은자	1	102		유순옥	1	160		윤?진	5	218		이복경	1
45	12	김성란	5	103		이은숙	1.4	161		이현영	5	219		이옥희	1
46		이광자	10	104	23	방태순	5.7	162		장영숙	1+2	220		최경애	1
47		노춘자	2	105		전영신	5+5	163		조민숙	2	221		함선희	1
48		김영신	1.4	106		서인숙	1	164		허순자	5	222	33	김성미	1
49		김영자	1.4	107		채영희	2	165		조민옥	5	223		배금배	1
50	13	손춘자	1+\$500	108		정정숙	10	166		고범자	5	224		배옥수	1
51		오순화	3	109		김영희	10	167		박혜란	5	225		이성희	1
52		강희자	1	110		이금자	3	168		이화주	1	226		이승은	1
53		송영원	1	111		방영숙	1	169		전숙영	2	227		정길순	1
54		조수자	1.4	112		신남순	3	170		윤매옥	1	228		정수행	1
55	14	고춘종	22.2	113		오미실	1	171	28	주혜은	10	229		조현란	1
56		유영삼	10	114		송명희	3	172		백경자	1	230		주인자	1
57		김정숙	10	115		왕미례	3	173		천성숙	5	231		최봉남	1
58		정숙자	5	116		윤옥희	1	174		이옥주	3	232		홍영란	1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233	34	곽경숙	1
234		곽계숙	1
235		김미선	1
236		김혜정	1
237		백경아	1
238		엄해경	1
239		이란	1
240		이덕자	1
241	34	송남숙	1
242		심선자	1
243		박현원	1
244		김장미	1
245	35	박옥자	1
246		박해경	1
247		양유미	1
248		권정남	1
249		김지애	1
250		김현숙	1
251		김혜경	1
252		탁남덕	2
253		전미숙	1
254	36	이강신	1
255		이은숙	1
256	37	심정하	2
257		김선숙	1
258		김성미	1
259		박선자	1
260		이강인	1
261	38	김연희	1
262		김정란	1
263		유명란	1
264		이현주	1
265		한성미	1
266	39	고효숙	1
267		안윤정	1
268		이미옥	1
269		이수정	1
270		한순희	1
271	39	김재현	2
272		손정아	1
273		김선미	1
274		박천미	2
275		김윤이	1
276	40	박은례	1
277		김세령	1
278		이성희	1
279		이은선	1
280		이춘화	1
281		김미순	1
282		이윤정	0.5
283		남인순	0.5
284	41	강은주	1
285		이미원	1
286		최영옥	1
287		최은주	1
288		임은영	1
289	42	문지원	1
290		김경아	1
291		서향란	1
292		신현이	1
293		이미현	1
294		허지연	1
295		이경남	1
296		김현정	1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297	43	백미라	1
298		문은하	1
299		박지숙	1
300		송점옥	1
301		이자영	1
302	44	서지연	1
303		소혜림	1
304		신선미	1
305		이현미	1
306		이선희	1
307		조혜숙	1
308	45	문지연	1
309		박희영	1
310		설경희	1
311		오명숙	1
312		오진경	1
313		천세희	1
314		홍윤정	1
315		김미나	1
316		양경자	1
317	46	강은숙	1
318		김주리	1
319	47	최수미	1
320		김유진	1
321		박미영	1
322		손미숙	1
323		강정화	1
324		김보미	1
325	48	김민경	1
326		김주란	1
327		백서진	0.6
328		백성민	1
329		서선아	1
330		정순복	1
331		김정미	1
332		이미희	1
333		이은진	1
334		?임선희	1
335		최선희	0.8
336		표미화	1
337		김정미	1
338		백경미	1
339		백정하	1
340	49	김신애	1
341		김아란	1
342		김애란	1
343		김은애	1
344		김은진	1
345		김춘애	1
346		동화진	1
347		서은경	1
348		조은정	1
349		최경미	1
350		최고은	1
351		유성은	1
352		이은선	0.6
353		이향숙	1
354		임금림	1
355		임정민	1
356		장미옥	1
357		장혜선	1
358		정지영	1
359		최지혜	1
360		조유리	1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361	49	강여진	1
362		김미선	1
363		김희정	1
364		임유라	1
365		정은진	1
366		정인숙	1
367		유현정	1
368		정민경	1
369		박수정	1
370		박의희	0.5
371	51	권소연	1
372		박은	1
373		박운자	1
374		소미영	1
375		유은혜	1
376		임동미	1
377		조성미	1
378		주연숙	1
379		진서영	1
380		차지혜	1
381		최미영	1
382		임주영	1
383	52	강보경	1
384		강우리	1
385		고정아	1
386		김민아	1
387		김선주	1
388		김성애	1
389		서미경	1
390		서유진	1
391	52	송경희	1
392		심미현	1
393		심효희	1
394		오정현	1
395		유정은	1
396		유혜란	1
397		유호정	1
398	52	김수미	1
399		김승미	1
400		김신정	1
401		문혜영	1
402		박성미	1
403		박유희	1
404		박혜진	1
405		백혜린	1
406		윤설화	1
407		은수빈	1
408		이나라	1
409		이남희	1
410		이보라	1
411		이세리	1
412		이자연	1
413		이지희	1
414		이하나	1
415		이혜진	1
416		정경화	1
417		정미라	1
418		정은주	1
419		주진미	1
420		한윤정	1
421	52	한주희	1
422		함수경	1
423		허정미	1
424		황주영	1

연번	졸업회수	성명	구좌
425	53	강미혜	1
426		강월수	1
427		김경희	1
428		김세라	1
429		김소정	1
430		김숙희	1
431		김안나	1
432		김유리	1
433		김하나	1
434		김한나A	1
435		김한나B	1
436		김호산나	1
437		변은희	1
438		양현진	1
439		오은영	1
440		유지영	1
441		이미현	1
442		이순영	1
443		장민희	1
444		장한빛	1
445		정수경	1
446		채민경	1
447		허진선	1
448		홍지영	1
449	54	김미영	1
450		김지혜	1
451		김혜영	1
452		양금주	1
453		윤동원	1
454		이미영	1
455		이슬아	1
456		이지영	1
457		이환빈	1
458		임혜현	1
459		최난이	1
460		최민지	1
461		권해진	1
462		김미리	0.3
463		정명준	0.3
464	55	김남주	1
465		김민희	1
466		김안덕	1
467		김하얀	1
468		손미진	1
469		이선아	1
470		이은경	1
471		이현숙	1
472		임하리	1
473		장복만	1
474		장정인	1
475		장진선	1
476		박인희	1
477		이수연	1
478	56	박승연	1
기타		예수병원마취과장 이준학	10
기타		뉴욕뉴저지동문	10
기타		전북대학병원 동문	20
		전주병원동문	17
		하귀례전사감	1
		손민서	0.3
		무명	5
총계		131,442,945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08. 10. 22 ~ 2010. 10. 20〉

2008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예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예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번	성명	구분	졸업회수	소속	기부액
1	박삼주	해외동문	1회	미국	282,528
2	박해옥	동문	1회		100,000
3	구원예	해외동문	3회	미국	141,264
4	박봉옥	해외동문	3회	미국	141,264
5	고정원	동문	5회	한국간병인협회	360,000
6	김석심	해외동문	5회	미국	1,150,602
7	엄재정	동문	5회		1,000,000
8	이애자	해외동문	5회	캐나다	528,795
9	고유근	동문	6회		100,000
10	김연자	동문	6회		1,000,000
11	박순옥	동문	6회		2,000,000
12	서점순	동문	6회		100,000
13	유복희	해외동문	6회	미국	282,528
14	김순옥	해외동문	7회	미국	141,264
15	염정임	동문	7회		1,000,000
16	임안자	해외동문	8회		400,000
17	곽광자	동문	9회	보람병원간호부장	480,000
18	조명원	해외동문	9회	미국	1,177,200
19	문옥자	동문	10회	미국	1,152,598
20	진청자	해외동문	10회	미국	141,264
21	김혜숙	해외동문	11회	미국	235,478
22	김영신	해외동문	12회	미국	58,860
23	김영자	해외동문	12회	미국	141,264
24	노춘자	동문	12회		50,000
25	조수자	해외동문	13회	미국	141,264
26	유영삼	동문	14회		10,000,000
27	김강미자	동문	15회	전 총장	10,000,000
28	김길려	해외동문	17회	미국	141,264
29	김영순	동문	18회	김제 장경현	3,000,000
30	유점순	동문	19회	제일병원	440,000
31	정성희	해외동문	19회	미국	141,264
32	이혜자	해외동문	21회		141,264
33	한경희	해외동문	21회	미국	141,264
34	홍의숙	해외동문	21회	미국	141,264
35	이덕실	동문	22회	군산의료원	300,000
36	이은숙	해외동문	22회		141,264
37	김정희	동문	23회	한양대병원	630,000
38	박정숙	해외동문	23회	미국	141,264

연번	성명	구분	졸업회수	소속	기부액
39	오경희	해외동문	23회	미국	423,792
40	전영신	동문	23회	예수병원	300,000
41	김경림	동문	24회		3,000,000
42	이혜숙	해외동문	24회		141,264
43	김희자	동문	26회		330,000
44	라옥이	동문	27회	한양대병원	720,000
45	윤진	동문	27회	예수대학교	2,500,000
46	정명희	동문	27회		1,000,000
47	조민옥	동문	27회		1,000,000
48	홍예숙	해외동문	27회	미국	141,264
49	권경희	동문	28회		720,000
50	31회 동문	동문	31회		10,000,000
51	32회 동문	동문	32회		10,000,000
52	이화재	동문	32회	군산시보건소	100,000
53	이혜영	동문	32회		80,000
54	최혜순	동문	32회	한양대병원	720,000
55	노인숙	동문	33회	전주호남제일고등학교	180,000
56	박부윤	동문	33회	김제소방서	720,000
57	고영미	동문	34회	아산병원	90,000
58	곽혜현	동문	34회	황등초등학교	480,000
59	이영화	동문	34회	전주솔빛중학교	1,500,000
60	최정희	동문	34회	전주송원초등학교	260,000
61	박해진	동문	35회	아산병원	690,000
62	전미숙	동문	35회	고산초등학교	720,000
63	이영현	동문	36회		30,000
64	조정순	동문	36회	단국대병원	720,000
65	소은미	동문	37회	임실청웅초등학교	630,000
66	심정하	동문	37회	예수대학교	680,000
67	이진영	동문	38회	전주서신초등학교	280,000
68	정은미	동문	39회	아산병원	720,000
69	김미순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1,050,000
70	김민정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1,050,000
71	김성미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1,050,000
72	남인순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1,050,000
73	박미선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1,050,000
74	박은례	동문	40회	전주완산서초등학교	720,000
75	소영진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1,050,000
76	소현	동문	40회	완주군 봉동초등학교	240,000
77	정경숙	동문	40회		200,000
78	조정희	동문	40회	장흥보건진료소	1,000,000
79	태선영	동문	40회	간중초등학교	20,000
80	홍은영	동문	40회	전북대병원	600,000
81	김윤정	해외동문	41회	영국	300,000
82	박계순	동문	41회		240,000
83	방양옥	동문	41회	삼성병원	480,000

연번	성명	구분	졸업회수	소속	기부액
84	최은주	동문	41회	전북대병원	1,050,000
85	송현정	동문	42회	전북대병원	700,000
86	탁은주	동문	42회	전북대병원	1,050,000
87	이미정	동문	43회	전북대병원	100,000
88	정분남	동문	44회		180,000
89	김효출	동문	45회	분당차병원	210,000
90	신수일	동문	45회	한양대병원	40,000
91	윤선희	동문	45회	삼성병원	40,000
92	한성주	동문	45회		240,000
93	손정자	동문	46회	전북대병원	1,050,000
94	김진희	동문	47회		300,000
95	이주희	동문	47회	전북대병원	1,050,000
96	임윤미	동문	47회	삼성병원	160,000
97	진귀옥	동문	47회	한양대병원	720,000
98	송영혜	동문	48회		40,000
99	원경화	동문	48회		110,000
100	임후남	동문	48회	전북대병원	1,050,000
101	조미희	동문	48회	전북대병원	250,000
102	박진아	동문	49회	전북대병원	1,050,000
103	최경현	동문	49회	전북대병원	1,050,000
104	김순실	동문	50회	순천향천안병원	10,000
105	김주희	동문	50회	천안단국대학병원	140,000
106	정은순	동문	50회	전북대병원	650,000
107	김민희	동문	51회	전북대병원	200,000
108	양미정	동문	51회	광주노벨병원	70,000
109	이은진	동문	51회	순천향천안병원	60,000
110	조은혜	동문	51회	전북대병원	1,050,000
111	손연금	동문	52회		130,000
112	유진녕	동문	52회		200,000
113	이보라	동문	52회		500,000
114	55회 동문	동문	55회		890,000
115	56회 동문	동문	56회		1,320,000
116	장화	동문	56회		400,000
117	강나루	동문	57회		400,000
118	권혜은	동문	57회		200,000
119	정남희	동문	57회		200,000
120	아주대병원동문	동문		아주대학교	1,600,000
121	공태현	재학생		로타렉트	100,000
122	김문정	재학생			200,000
123	동문회장학금	동문			4,000,000
124	이지연	재학생		로타렉트	100,000
125	CHUNHEE YUN	해외동문			1,174,000
총액					100,289,896

예수대학교 동문회 회칙

2010. 7. 27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 칭) 본회는 “예수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 제4 조(지 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사 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
 - 3) 모교발전을 위한 자금조성사업
 - 4)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예수대학교 졸업자(예수대학교 전신 포함)로 한다.
 - 2)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 교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원하는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모교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정회원은 회비의 부담 및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제6조에 의무를 이행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8조 1항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원

제9조(임원과 임기)

-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10명 이내
 - 3) 총무 : 2명
 - 4) 서기 : 2명
 - 5) 회계 : 2명
 - 6) 감사 : 2명
-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이사, 대표이사)

- 1) 임원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 2) 이사는 일정액의 이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이사 중 회장이 10명 이내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임원과 대표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고문)

- 1) 본회에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모교의 전, 현직 학, 총장과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제 1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부회장의 유고시는 졸업년도 순위로 한다.

제15조(총무)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실무를 수행한다.

제16조(서기) 회의록 작성 및 보고를 한다.

제17조(회계) 총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감사)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 한다. (단, 필요시 추가 감사할 수 있다.)

제19조(사무 간사)

- 1)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 2) 사무 간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3) 사무 간사는 회장의 감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 4) 사무 간사는 유급으로 한다.

제2절 선거

제20조(회장선출)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부회장선출)

- 1) 제1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제2부회장은 10명 이내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동문회 회칙

제22조(총무, 서기, 회계선출) 총무, 서기, 회계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 인준을 받는다.

제23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4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개교기념일(6월1일)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6조(구성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상임이사의 2/3 이상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개최는 최소 7일 전에 통보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된 자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는 200명 이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 부회장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 ② 예산안 심의
- ③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 ④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안 심의
- ⑤ 회무 운영방법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⑥ 총무, 서기, 회계 선임
- ⑦ 사무 간사의 임명동의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3) 2항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재 정

제30조(수 입)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이사회비와 찬조금 및 기

부금으로 운영한다.

2) 입회금과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인준을 받는다.

3) 회비는 평생회비와 일반회비로 구분한다.

4) 평생회비는 회비의 15배로 정한다.

5) 이사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지출)

1) 본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의해 집행된다.

2) 추경예산의 의결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6월에서 익년 5월말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위원회)

1) 본회에서 중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회장 소관 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위원은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199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교의 교명 변경에 따른 동문회의 명칭) 추후 동문회의 명칭은 모교의 교명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총동문회 평생이사명단

〈2010. 10 월, 현〉

졸업회수	이름	졸업회수	이름	졸업회수	이름	졸업회수	이름	졸업회수	이름
1	김정숙	9	양정복	18	류금주	24	양명순	28	이옥주
1	박해옥	9	은재희	19	한금녀	24	유계숙	29	김하숙
2	공순구	10	전혜경	20	김봉선	24	황영숙	29	양명석
2	김은옥	11	김광자	20	장은숙	25	김은숙	29	이성숙
4	양순복	11	신정자	20	최옥주	25	유금희	29	이효실
4	이인수	11	오은자	21	서정자	25	유필숙	30	이순복
4	황희심	12	김성란	21	차혜영	25	이정희	30	이은규
5	이준례	12	이광자	22	송성희	25	정하숙	31	고선화
5	황영례	14	김정숙	22	정여숙	26	양미자	31	김은실
6	고유근	14	유영삼	22	조점엽	26	옥루수	32	함선희
6	김연자	14	정숙자	23	서인숙	26	한혜실	33	홍영란
6	박순옥	15	김강미자	23	전영신	27	박혜란	34	백경아
6	서점순	15	양정숙	23	정정숙	27	윤매옥	34	이덕자
6	양광자	15	최학례	23	채영희	27	윤진	37	심정하
7	염정임	16	김금자	24	김경림	27	이화주	40	김미순
8	백영애	17	김용옥	24	김숙희	27	장영숙		
8	이라	17	박정순	24	김순애	27	조민숙		
9	곽광자	17	이학순	24	배은경	28	박정순		

※ 평생이사제도는 1993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회비는 50만원입니다.

총동문회 평생회원명단

〈2010. 11 월, 현〉

졸업회수	명단	졸업회수	명단
1	최순자, 김정숙(2)	23	정여숙, 김옥숙, 서인숙, 전영신, 채영희, 정정숙, 고정순(7)
2	김은옥, 천옥순, 공순구(3)	24	배은경, 김경림, 황영숙, 양명순(4)
3	이덕례, 이길례(2)	25	조현숙, 이덕진, 김혜숙, 전애리, 양정임, 이영은, 김명숙, 김은숙, 정하숙, 유필숙, 임순옥, 김현숙, 김혜신, 최은희, 조명희, 이매내, 김차옥, 정명자, 이정희(19)
4	양순복, 황희심, 이인수, 박정순(4)		
5	김정숙, 김정순, 이준례, 엄재정, 황영례(5)	26	김오선, 박순옥, 김은주, 유해분, 옥루수, 이혜숙, 양복순, 한혜실(8)
6	고유근, 박순옥, 서점순, 정정옥, 양광자, 김연자(6)	27	조민숙, 윤매옥, 이화주, 박혜란, 윤진, 송미령(6)
7	이경자, 염정임, 박은희(3)	28	박양숙, 천성숙, 유금남, 방현숙, 소성섭, 이현옥, 김원경, 장자숙, 박현전(9)
8	이라, 양금옥, 박희정, 백영애(4)	29	김하숙, 이효실, 유정애, 허미양, 박효순(5)
9	방인숙, 은재희, 서명자, 곽광자(4)	30	김미선, 양영실(2)
10	황송자, 이순자, 전혜경(3)	31	우정순, 임연희, 안정근, 박정자, 노미현, 이미선, 김은실, 김정남, 이금선(9)
11	신정자, 이숙자, 오은자, 최향림(4)	32	이복경, 손영자, 김미연, 이옥희(4)
12	김성란, 이광자, 윤애자, 김기자(4)	33	홍영란, 배금배, 배옥수, 정수행, 정길순, 김성미(6)
13	박혜옥(1)	34	신향숙, 김윤희, 권경수, 송남숙, 홍명주(5)
14	정숙자, 이현순(2)	35	김선하, 김혜선, 김지애, 진명숙, 권혜정, 김영아, 김윤경(7)
15	양정숙, 이애자, 최신애, 김강미자(4)	36	이강신(1)
16	임덕자, 권양순, 박민자, 김인숙, 주정남, 이명숙, 지옥순, 심영희, 구선숙, 박경신, 윤행숙, 황성자, 김금자(13)	37	최영신(1)
		38	이정화, 박은아, 김주진, 이경숙(4)
17	김명숙, 김용옥, 이학순, 박정순, (4)	39	김평년, 현문옥, 진경아(3)
18	박정선, 류금주, 전양남(3)	40	이수미, 박은미(2)
19	송국희, 유점순, 한금녀, 유순(4)	41	이정옥(1)
20	김봉선, 장은숙, 최옥주(3)		
21	차혜영, 오영희, 손장순(3)		
22	조점엽, 김형자, 이덕실, 서경자(4)		

총인원 : 188명

※ 평생회원제도는 1993년 6월에 시작되었으며, 회비는 30만원(연회비 20,000원×15회)입니다.



● 동문회 역대회장 및 주요연혁



■ 역대회장

기 간	성 명
제 1대~제 2대(1956. 2~1958. 1)	은종국 (제 1회)
제 3대~제 4대(1958. 2~1961. 1)	오정옥 (제 1회)
제 5대~제 13대(1961. 2~1978. 1)	공순구 (제 2회)
제 14대~제 21대(1978. 2~1996. 5)	양순복 (제 4회)
제 22대~제 33대 (1996. 5~2006. 5)	공순구 (제 2회)
제 34대 (2006. 5~2008. 5)	유영삼 (제 14회)
제 35대 (2008. 5~2010. 5)	김경림 (제 24회)
제 36대 (2010. 5 ~ 2012. 5)	류금주 (제 18회)

■ 연 혁

날 짜	연 혁
1956. 2	1, 2회 동문 23명이 모여 동창회 창립
1961. 3	각지방 지회장 선정
1970. 3	변마지 교장선생님 송별연
1974. 2	신축교사 건립기금 500만원을 모교에 기탁
1975. 5	모교 신축교사 봉헌식에 변마지 교장님 초청
1987. 5	신축 기숙사(신애학사)건립기금으로 1억3백9십8만2천원을 모교에 기탁
1987. 6	공순구 동문(제2회)이 제31회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
1990. 6	개교 40주년 기념 동문의 밤 개최
1992. 6	동문이사회 창립, 지역별 이사를 선정
1993. 6	‘변마지의 삶과 철학’ 출판 및 기념예배
1994. 5	제16회 동문을 시작으로 개교기념 예배 시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 시작
1995. 3	모교 예배당 및 교사신축을 위한 건축기금 1억원 모교에 기탁
1996. 4	제42차 동문회 총회를 미국 LA에서 개최
1996. 12	모교 예배당에 강대상과 의자 및 장학금, 발전기금으로 1억3,400만원 기탁
1997. 12	‘예수간호동문회보’ 창간호 발간
1999. 8	2000년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및 4년제 간호대학 추진 논의
2000. 5	4년제 승격을 위한 대학발전기금 2억원을 모교에 기탁 개교 50주년 기념 동문의 밤 개최
2004. 5	제1회 동문을 시작으로 졸업 50주년 재상봉 행사 시작(1회 동문 5명 참석)
2004. 5	동문회 간사 활동 시작, 인터넷 동문 카페 개설
2009. 6	2010년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장학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
2010. 5	개교 60주년 기념 총동문의밤 개최
2010. 11	예수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재단설립 신청

| 편집위원 | 윤 진, 양복순, 조민숙, 김윤이, 조혜숙